

# 2021 June Hana Market Monthly

연구위원 서정훈  
Tel. 02-729-0195  
seojh@hanafn.com

연구위원 박정은  
Tel. 02-729-0190  
jungeunpark@hanafn.com



## 목차

---

I. 금리	3
I. 달러/원 환율	5
III. 엔/원 환율	7
IV. 유로/원 환율	8

---

# 금리

## 4월 동향

### 미 테이퍼링 이슈와 국내 성장 전망 상향 등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, 미 정책당국자들의 일시적 인플레이션 언급 등이 금리상단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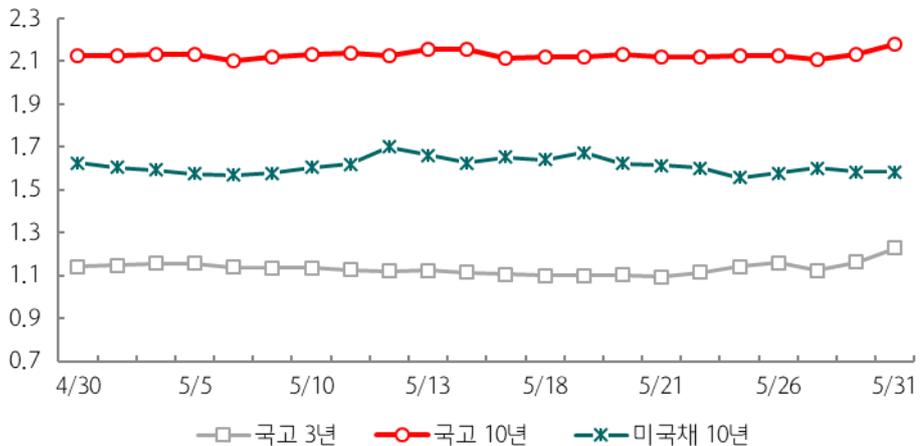
미 열린 재무장관의 금리인상 발언에 등락 보인 가운데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

미 주요 경제지표가 엇갈린 결과가 나왔으나, 물가지표 개선에 테이퍼링 이슈 부각으로 금리 상승

금통위에서의 국내 성장 전망 4% 상향 조정 속에 미 PCE 물가지표의 큰 폭 개선 영향 등으로 상승

- 5월 초, 채권시장 수급상황과 외국인 매도 확대 등으로 상승 출발 후, 미 열린 재무장관의 금리인상 언급에도 원론적 수준 인식 속에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경계감 강화되며 상승 지속
  - 5월 초, 대내적 채권시장 수급 관련 경계감 속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의 요인으로 상승 출발
  - 이어 열린 재무장관의 금리인상 언급이 단기 영향을 미쳤으나, 원론적 수준에서의 발언임을 전제함에 따라 되돌림 되었으나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강보합 시현
- 중반, 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였으나, 곧이은 CPI지표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며 테이퍼링 이슈를 부각함에 따라 미 국채금리 상승 속 국고채금리 연동
  - 중반, 미국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하였으나, 이어 발표된 CPI 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함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 속에 국내 장기구간에서의 수급 부담이 겹쳐지며 상승 추세 유지
  - 이후, 4월 연준의사록에서의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, 이어진 연준위원들의 테이퍼링 연내 일축 발언 등으로 우려감이 잦아드는 가운데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하는 모습
-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속에 성장 전망 4%로 상향했음에도 오히려 금리는 하락 모습 보인 가운데 미 PCE지표 큰 폭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재부각되며 상승 전환 마감
  - 한은 금통위에서 성장 전망을 4%로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시장의 선제적 반영 등으로 오히려 국고채 금리는 하락 되돌림 되는 양상 시현
  - 이어 미 PCE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테이퍼링 이슈가 하반기로 가며 좀 더 부각될 여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하며 마감

### 주요 시장금리 추이



5월 평균  
 국고채(3년): 1.13%  
 국고채(10년): 2.13%  
 T-Note(10년): 1.61%

## 5월 전망

### 국내외 주요국 경기 확장 속에 한은의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의 점진적 상승 예상

평균	1Q21	2Q21	3Q21	4Q21
국고채(3y, %)	1.04	1.20 <sup>(F)</sup>	1.30 <sup>(F)</sup>	1.35 <sup>(F)</sup>

국내 백신접종 확대 속에 내수부문 회복 기대 등의 강화가 4% 성장 전망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

미국 물가지표의 큰 폭 상승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, 연준의 현 인플레이션 수준 허용 등에 따른 현 금리수준 정책이 금리 상단 제한할 전망

6월 국고채(3Y) 금리는 1.15-1.25% 예상

- 국내 백신접종이 한-미 정상회담 후 확대될 전망 속에 내수 확대 기대 등으로 성장 전망이 4%로 크게 강화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이 견인될 것으로 예상
  - 한-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 백신 접종 확대 등이 국내 내수 부문 회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
  - 이에 따라 국내 연간 성장 전망이 4%로 상향 됨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가팔라 질 수 있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미국 PCE(개인소비지출물가) 지표가 시장 예상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경제재개 움직임 확대 등이 미 국채금리 상승 속 국내 금리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  - 미국의 CPI와 PCE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참가자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보다 자극할 가능성 등이 국고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 - 다만, 고용지표의 방향성과 연준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일 것임을 시사하는 측면에 따라 연내 통화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국내외 금리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
- 대내적 반도체, 조선 등의 수출 호조세에 따른 국내 경기 회복 기대 반영 속에 수급상 추가 재난지원금 이슈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
  - 반도체, 조선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국내 경기 지표 개선 등이 경기회복력을 높이는 가운데 한은의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점증 등으로 국고채 금리의 상단을 높일 전망
  - 여기에 추가 재난지원금 이슈에 따른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 요인 등도 금리 상승요인으로 예상

#### 상승 요인 vs. 하락 요인

상승요인	하락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내 성장 개선 속 조기 통화정상화 기대</li> <li>· 미 물가지표 개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강화 가능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한-미 통화 당국의 완화적 기조 연내 유지 가능성</li> </ul>

자료: 하나은행

# 달러/원 환율

## 5월 동향

미 인플레이션 우려 속 테이퍼링 기대 등이 상승에 영향 미친 가운데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이션 허용 속 미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 등이 위험선호 강화하며 하락

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 
연준의 금리인상 언급  
등이 달러 강세 견인

- 월초, 미 경기 확산세 속에 열린 재무장관의 금리인상 언급 영향이 달러 강세 견인. 그러나 인도발 코로나 확산 등으로 미 국채금리가 하향 움직임을 보이며 달러 약세 전환 시현
  - 미국 경기 호조세에 따른 달러 강세 속 환율 상승 출발 후, 인도발 코로나 확산세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이 미 국채금리를 하향에 영향 미치며 달러 약세 전환 흐름에 연동
  - 이어 열린 재무장관의 미 경기에 대한 금리인상 언급 등으로 재차 달러 강세 탄력 받았으나, 이내 발언 내용을 다소 완곡하게 재언급함에 따라 달러도 재차 약세 흐름으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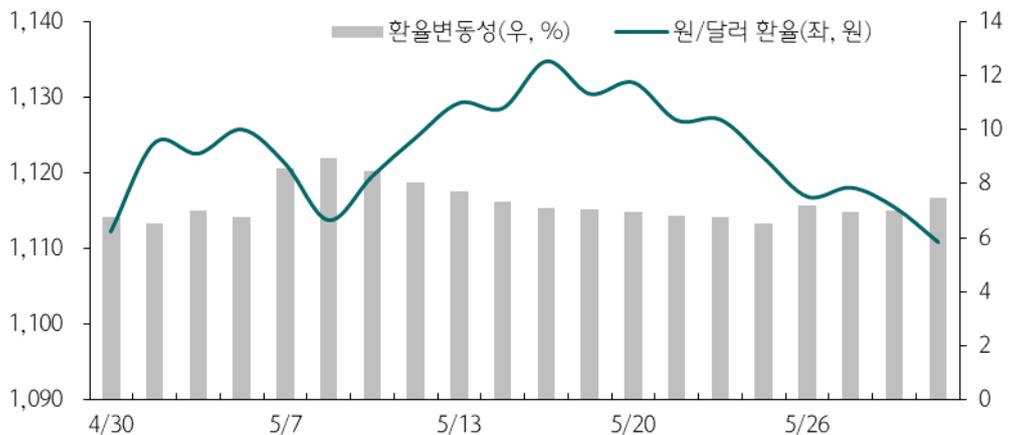
미 경제지표에 따른  
테이퍼링 이슈 부각

- 월 중반, 미 경제지표 결과에 동조화되며 등락 시현 후, 연준 4월 의사록에서의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에 상승 전환하다 수급 요인에 따른 고점 매도 영향 등으로 1,120원 중반 지지
  -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테이퍼링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원화가 강세를 보였으나, 이내 CPI가 크게 상승하며 인플레이션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원화약세 전환
  - 이후, 연준의 4월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시되며 달러강세로 소폭 상승하다 일부 동 재료의 소화 과정을 거치며 하락 전환했으나, 저점 인식의 결제수요 유입 등으로 1,120원 중반 지지 양상

연준 및 미 재무장관의  
인플레이션에 대한  
일시적 현상 언급과  
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 
에 대한 기대가  
위험선호 강화

- 5월 후반, 테이퍼링 관련 이슈가 다소 완화하는 가운데 열린 미 재무장관의 인플레이션 하락 언급 발언 속 6조 달러 규모 대규모 재정부양 전망 등이 위험 선호 확대하며 하락 마감
  - 연준위원들의 통화완화 지속 시그널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
  - 이어 미 열린 재무장관의 현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것으로 연말께 하락 기조를 시사한 언급과 미국의 6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 기대감 등으로 위험선호 강화되며 1,110원대 초반 마감

달러/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



5월 달러/원 평균환율 : 1,122.8  
5월말 달러/원 환율 : 1,110.9

## 6월 전망

백신 접종 등에 따른 세계경기 회복 속에 국내 수출경기 개선 및 성장 전망 동력이 원화 강세 요인이나 미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테이퍼링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하단을 제한할 전망

평균	1Q21	2Q21	3Q21	4Q21
달러/원 환율(원)	1,114.7	1,120 <sup>(F)</sup>	1,130 <sup>(F)</sup>	1,140 <sup>(F)</sup>

미국 물가지표 호조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 높이겠으나, 연준의 통화완화적 스탠스는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

-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개선 속 회복 양상이 여전히 통화완화적 기조에서 위험선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미국 물가지표 개선에 따른 테이퍼링 이슈가 그 영향 제한 할 전망
  - 미국 물가지표가 크게 개선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상황이 경제주체들의 테이퍼링 심리에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 - 그러나 여전히 연준에서 통화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백신접종으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점은 동전에 반대적 측면에서의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제한될 수 도 있을 전망

중국의 위안화 강세 영향이 상층적으로 원화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

-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대응 위안화 강세는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
  - 반면,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되는 중국이 이에 대응하고자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원화의 동조 영향 반영 등으로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

5월 달러/원 환율 1,100 ~1,120원 변동 예상

- 한-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 백신 접종 확대 가능성 등은 국내 민간 경제 활력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조선,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는 대내적 위험 선호 신인도를 제고할 전망
  - 한-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 백신 접종 확대 이슈는 국내 민간의 소비 활력 강화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체질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  - 여기에 세계 교역 확대 속 수출 및 정부지출 확대 등이 성장 전망을 강화하는 요인 등이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통해 원화 가치 강세에 영향 미칠 전망

### 상승 요인 vs. 하락 요인

상승요인	하락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의 강한 상승에 따른 테이퍼링 이슈 지속</li> <li>· 유로 경기 부진에 따른 유로 약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준의 통화완화 스탠스 유지</li> <li>· 국내 백신 접종 확대 속 민간 소비 활력 등이 대외 신인도 제고 할 듯</li> </ul>

자료: 하나은행

# 엔/원 환율

## 5월 동향

달러/엔 환율은 미국 테이퍼링 우려 속 109엔 전후의 제한된 변동 시현. 엔/원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 충격 이후 아시아 통화 강세 등에 따른 원화 변동에 영향받아 1,040원까지 상승 후 하락 전환

엔/원 환율 전월대비 15원 하락한 1,012.3원에 마감

- 엔/원 환율은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 속 안전자산 선호에 큰 폭 상승 후 위안화에 연동된 원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마감
  - 월 초, 미국 고용지표 부진 속 테이퍼링 가능성 약화에 따른 엔화의 상대적 강세와 국내 증시 불안 등 위험선호 둔화에 따른 원화 약세가 엔/원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
  - 월 중반, 미국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에 연준 긴축 우려 심화된 영향으로 위험선호 둔화, 엔/원 환율은 1,040원대까지 상승 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
  - 월 후반, 유로화 강세 속 달러지수 하락,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른 위험선호, 위안화에 연동된 원화 강세 등에 엔/원 환율은 1,012원까지 하락하며 마감

## 6월 전망

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 발표, 6월 FOMC 전후 달러 변동성 확대 속 달러/엔 환율 변동 전망. 엔/원 환율은 원화에 우호적인 요인에 의해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하락을 제한할 전망

달러/엔 환율 제한적 변동 전망

- 금월에도 테이퍼링 이슈가 달러/엔 환율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 -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 발표 전후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되면서 달러화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달러/엔 환율 또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  - 6월 FOMC(6/16-17)에서 긴축과 관련된 시그널이 나올 경우 달러 강세가 재개될 것이나 연준의 스탠스가 아직까지는 완화적일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달러/엔 환율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
  -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의 상대적 약세 흐름도 환율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

엔/원 환율 하락 우위 전망

- 엔화 약세 기조 속 원화 강세가 엔/원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
  - 글로벌 금리가 상승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BOJ의 금리통제정책으로 엔화의 전반적인 약세압력이 지속될 전망
  - 국내 제조업, 수출 경기 개선 등 대내 여건이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엔/원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

# 유로/원 환율

## 5월 동향

유로/달러 환율은 유로존 백신 보급 정상화, 경기 개선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 시현. 유로/원 환율은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세 이어가다 월 후반 위안화에 연동된 원화 강세에 하락 전환

유로/원 환율 전월대비 9.2원 상승한 1,356.1원에 마감

- 유로/원은 전반적인 유로화 강세 흐름 속 상승세 지속되었으나 월 후반 원화 강세 전환에 하락하며 상승폭 축소
  - 월 초, 유로존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감 속 유로화 강세 압력이 유로/원 환율 상승 견인
  - 월 중반,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에 위험선호 둔화된 영향으로 원화 약세 심화. 유로화는 원화대비 영향을 덜 받으며 환율 추가 상승 시현
  - 월 후반, 전반적인 유로화 강세가 지속됐으나 위안화에 연동된 원화 강세 영향으로 유로/원 환율 하락 전환 후 1,356원으로 하락 마감

## 6월 전망

유로존 백신 접종 정상화 속 경제 재개 기대감이 유로/달러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. 유로/원 환율은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유로화 강세요인으로 상승 전망

유로/달러 제한적 상승 전망

- 유로존 백신 보급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가 유로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
  - 유로존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속화된 PEPF 속도의 되돌림 가능성 등이 유로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. 다만, 가파르게 상승한 유로화의 차익실현 매물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
  - 6월 FOMC에서 긴축 시그널을 제공할 경우, 강달러가 재개되며 유로/달러 환율 하락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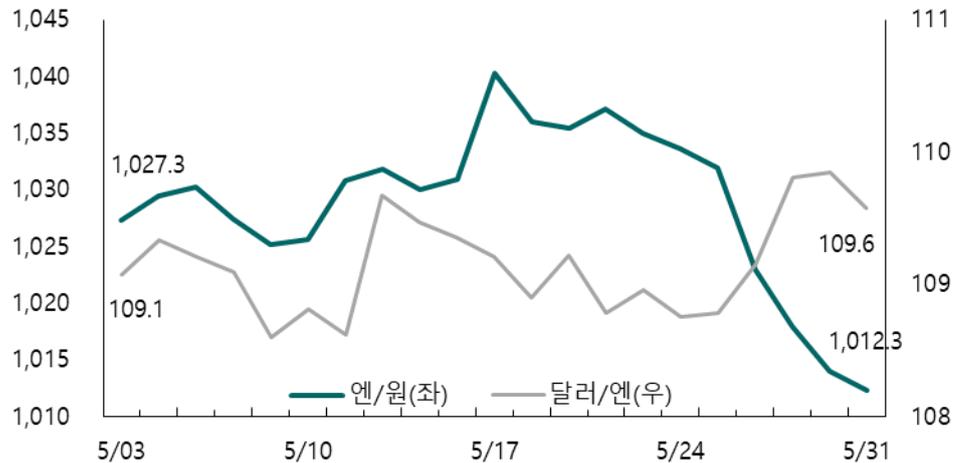
유로/원 환율 제한적 상승 예상

-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 우호적 환경이 유로/원 환율 상승 제한할 전망
  - 유로존 경기 개선 기대감에 따른 유로/원 환율 상승 전망. 유로존 백신 접종 정상화 속 경제 재개로 경기 회복 전망이 잇따르며 유로화 강세 압력을 높이고 있음
  - 다만, 한국 백신 보급 및 수출/제조업 경기 회복 등 원화 또한 강세 우호적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유로/원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

# JPY, EUR Chart

엔/원 및 달러/엔 환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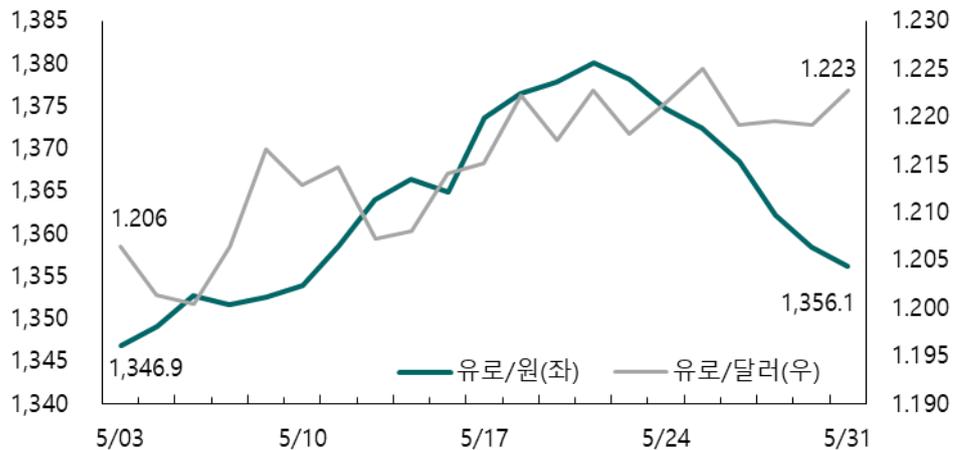
5월 달러/엔 평균환율 : 109.2  
 5월 엔/원 평균환율 : 1,028.8  
 6월 엔/원 예상범위 : 1,000~1,020



자료: 하나은행

유로/원 및 유로/달러 환율 추이

5월 유로/달러 평균환율 : 1.2148  
 5월 유로/원 평균환율 : 1,363.8  
 6월 유로/원 예상범위 : 1,350~1,380



자료: 하나은행

#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(2021.6월)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<b>1 RBA 통화정책회의</b>	<b>2</b>	<b>3</b>	<b>4</b>	<b>5</b>
*주: 1.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. [P]-잠정지, [F]-확정지, [SA]-계절조정, [A]-예고지, 0안은 이전지		한 5월 수출/수입(40.9%/~%, YoY) 5월 무역수지(\$434M) 5월 Markit PMI 제조업(54.6) 미 5월 ISM 제조업지수(60.7) 5월 ISM New Orders(64.3) 5월 ISM 고용(55.1), ISM 구매물가지수(89.6) 5월 Markit 제조업 PMI(61.5) 4월 건설지출(0.2%, MoM) 호 RBA 기준금리(0.1%)	한 5월 CPI(0.2% MoM, 2.3% YoY) 유 4월 PPI(1.1% MoM, 4.3% YoY) 5월 CPI(0.6% MoM, 1.6% YoY) 4월 실업률(6.1%) 중 5월 Caixin 제조업 PMI(51.9) 일 5월 분원통화(24.3%, YoY)	한 5월 외환보유고(\$452.31b) 미 5월 ISM 서비스(62.7) 5월 Markit PMI 종합(F)/서비스(F)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 ADP 취업자 변동 유 5월 Markit PMI 서비스 5월 Markit PMI 종합 중 5월 Caixin 종합 PMI(54.7)/서비스 PMI(56.3) U.S.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	미 4월 내구재 주문(F), 제조업 주문(1.1%) 5월 실업률(6.1%) 시간당 평균임금(0.7% MoM, 0.3% YoY) 유 4월 소매판매(2.7% MoM, 12% YoY) 일 4월 기계 소비자지출(6.2%, YoY)	
<b>6</b>	<b>7</b>	<b>8</b>	<b>9</b>	<b>10 ECB 통화정책회의</b>	<b>11</b>	<b>12</b>
	유 6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(21) 중 5월 무역수지(\$42.85b) 5월 수출/수입(32.3%/43.1%, YoY) 독 4월 공장수주(3.0% MoM, 5.1% YoY)	한 5월 BoP 경상수지, 상품수지 미 4월 무역수지(\$-74.4b) 유 6월 ZEW 서베이 예상(84) 1Q 고용(0.3% QoQ, -1.9%, YoY) 독 4월 산업생산(2.5% MoM, 5.1% YoY) 6월 ZEW 서베이 예상(84.4) 일 4월 BoP 경상수지	한 5월 실업률(3.7%) 중 5월 CPI/PPI(0.9%/6.8%, YoY) 독 4월 수출/수입(1.2%/6.5%, MoM) 1Q 노동비용(2.1% MoM, 3.5% YoY) 일 5월 통화량 M2(9.2%, YoY), M3(7.8%, YoY) 5월 공작기계 수출 전년비(120.8%, YoY)	미 5월 CPI(0.8% MoM, 4.2% YoY)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 ECB 단기수신금리(-0.5%) 일 5월 PPI(0.7% MoM, 3.6% YoY)	한 5월 수출물가지수(2.2% MoM, 10.6% YoY) 5월 수입물가지수(-0.5% MoM, 15.0% YoY) 미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, 경기연황	
<b>13</b>	<b>14</b>	<b>15</b>	<b>16</b>	<b>17 美 FOMC</b>	<b>18 BOJ 통화정책회의</b>	<b>19</b>
	유 4월 산업생산(0.1% MoM, 10.9% YoY) 일 4월 광공업생산(F) 4월 설비가동률(5.6%, MoM)	한 5월 통화공급 L(1.5%, MoM), M2(1.2%, MoM) 미 5월 PPI(0.6% MoM, 6.2% YoY) 5월 설비가동률, 광공업생산(0.7%, MoM)	미 5월 수출물가지수(0.8% MoM, 14.4% YoY) 5월 수입물가지수(0.7% MoM, 10.6% YoY) 5월 주택착공건수(-9.5% MoM) 5월 건축여가(0.3% MoM) 중 5월 소매판매(17.7%, YoY) 5월 광공업생산(9.8%, YoY) 일 5월 수출/수입(38.0%/12.8%, YoY) 5월 무역수지(₩255.3b) 4월 핵심기계수주(3.7% MoM, -2.0% YoY)	미 FOMC 금리 결정(0.00% ~ 0.25%)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(31.5) 유 4월 건설생산(2.7% MoM, 18.3% YoY) 중 5월 신규주택가격  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Meeting	유 4월 ECB 경상수지(17.8b) 독 5월 PPI(0.8% MoM, 5.2% YoY) 일 5월 전국CPI(-0.4% MoM) 일본은행 정책금리전고(-0.1%)	
<b>20</b>	<b>21</b>	<b>22</b>	<b>23</b>	<b>24 EU 정상회담</b>	<b>25</b>	<b>26</b>
한 5월 소매판매 YoY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 3.85% 5년 위안화 대출금리 4.65%	한 5월 PPI(5.6% YoY) 미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5월 기존주택매매(5.85m)	미 5월 신규 주택매매(-5.9%, MoM) 6월 MBA 주택융자 신청자수 6월 Markit PMI 제조업/서비스/종합 유 6월 Markit 제조업/서비스/종합 PMI 일 6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, 서비스, 종합	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(105.2) 미 5월 내구재 주문, 개인소비 5월 소매재고, 도매재고, 1Q GDP물가지수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영 영란은행 기준금리(0.1%) 독 6월 IFO 기업환경지수 일 5월 PPI 서비스(1.0%, YoY)  ECB Publishes Economic Bulletin	한 7월 기업경기실사 제조회업/서비스업 미 5월 개인소득, PCE 디플레이터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, 경기연황 독 7월 Cfk 소비자 기대지수 일 6월 도쿄 CPI		
<b>27</b>	<b>28</b>	<b>29</b>	<b>30</b>			
미 6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Summer Economic Forecasts	미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4월 FHFA 주택가격지수(1.4%, MoM) 유 6월 경기/산업/서비스/소비자 기대지수 일 5월 실업률, 소매판매	한 5월 광공업생산 미 6월 ADP 취업자 변동, MBA 주택융자 신청자수 중 6월 종합/제조업/서비스업PMI 일 6월 소비자대지수, 광공업생산				

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.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,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(<http://fx.kebhana.com>) → 환율 → 외환시장동향 →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